

# 리더(Leader)와 팔로워(Follower)

우리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직장 동료나 상사와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과의 조화로운 삶이 바로 당신의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리더(leader)와 팔로워(follower)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상사로부터 “○○대리하고 같이 일한다면 무슨 일이든 추진할 수 있어”라는 신뢰를 주는 팔로워가 되어야 하며, 부하직원으로부터는 “○○팀장님과 같이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 주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

## 따르는 것의 힘

허먼 밀러(Herman Miller)라는 미국 가구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맥스 디프리(Max De Pree)는 따르는 일(Follower Ship)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었다.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따르는 이(Follower)라 하면 무조건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런 선입관부터 깰 필요가 있다. 따르는 이의 단어는 본래 ‘돕다, 후원하다’라는 뜻의 독일어인 ‘Follazionhan’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즉 원래 어원대로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팔로워란 ‘리더에게 없으면 안 될 돕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Leader와 Follower 사이의 관계는 원래 평등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디프리는 리더란 자기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빛을 진 존재임을 향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따르는 이들에게 빛을 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따

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여 승리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좋은 리더십의 4가지 요소

### 1. 균형감각

육체, 정신과 영혼의 계기판을 잘 체크하고 있으면 자기 관리가 잘된 리더가 될 수 있다. 균형의 원리는 집중의 원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프랑스군은 1,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긴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그것을 철용성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그 중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방어선을 간단히 무너뜨려 버렸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강조하면 나중에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그 시대의 상황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 주는 것이 균형이다.

### 2. 인격, 신뢰성

리더에게는 팔로워들이 따를만한 훌륭한 인격



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부하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약간의 훈계를 통해 다음부터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거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 어제한 말이 오늘 틀린다면 이미 리더로서의 신뢰는 상실하고 말 것이다.

### 3. 능력

지도자는 훌륭한 인격자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격과 함께 능력 그리고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GE사 잭 웰치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그가 계열사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지적 능력이라 함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만물박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내고, 그것들을 당신의 신념과 상황에 맞게 해석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더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공부한 것을 다시 생각해서 실천하는 계획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4. 융화력/팀워크 창조력

우리사회에서 엘리트는 많지만 진정한 리더는 적은 것 같다.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는 무엇인가?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언어로 지적하고 표현해 줌으로써, 자신감에 불

을 붙이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격려와 훈련을 받도록 하여 무대 위에 세워 주고, 성공했을 때 박수를 쳐주고, 실패했을 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제자리에 설 때까지 옆에서 끝까지 힘을 실어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스타플레이어 출신들이 감독으로 전향하면 헤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워낙 위대한 스타였기 때문에 재능이 탁월하지 않은 선수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바랜 선수시절을 보낸 감독들이 오히려 전략을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세심히 연구하여 팀워크를 잘 이끌어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도 한다. 스타 플레이어는 엘리트지만 감독은 리더이기 때문이다.

### 웃음과 여유

보통 TV나 신문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계제 인사들과 외국의 리더들을 잘 비교해 보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지도자들은 별로 표정이 없고 잘 웃지도 않으며 웃어도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일하는 스타일에서도 한국형 리더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 몰아붙이는 성향이 짙어서 여유가 없어 보인다. 원래 전문가일수록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완급을 잘 조절한다. 리더는 웃음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유머 감각을 늘 잊지 않도록 하고, 최상의 가능성을 늘 생각하도록 하라. 그것이 낙심하고 피곤해하는 당신의 팔로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아야 한다.

